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 2007 Edition

Summary in Korean

### 국제이주전망: SOPEMI - 2007 년판

국어개요

#### 의료부문 두뇌유출: 신화, 현실

John P. Martin

개도국에서 OECD 국으로의 두뇌유출이 특히 의료전문인 분야에서 다시 우려되고 있다.

OECD 국으로의 고숙련 인력 이민은 흔히 개도국에서 유입되어 지난 10-15 년 동안 증가세를 보인 바 개도국의 수많은 고급인력이 OECD 국으로 이동하는 “두뇌유출”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 표명은 최근 해 OECD 국의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채용과 관련하여 가장 심했으며 OECD 국의 노령화로 의료전문인 수요가 촉진되면서 수많은 개도국이 보건분야의 의료두뇌유출로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이다.

동 보고서는 이 사안에 관한 신규 증거를 소개한다.

의료전문인의 국제이동은 정책 관심사안으로 부상했음에도 이에 관한 확고한 증거는 한정되었고 수시로 일화적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각종의 추측만을 불러일으키면서 효과적인 정책대응 개발에 장애가 되었다. 이를 해소토록 금년 보고서에서는 2 개 별도 장의 1 장에서 OECD 국가 의료분야의 이민자에 관한 포괄적인 최신 현황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 국제 논의장에서 상기 사안의 핵심이 되는 여러 기본문제에 대해 답안을 제시한다.

OECD 국가 의료전문인의 국제이주는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느 국가가 이에 가장 많이 관련된 인력 유출국, 유입국인가? 상기 이주는 개도국의 의료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의료인력 유출국과 유입국 양정부가 의료인력의 현 국제이주추이에 부합토록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급 인력 이주자 가운데 의료전문인 비중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고...

고급인력 이주자 가운데 의료전문인 비중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통계자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료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무렵 OECD국에서 고용된 간호사, 의사 가운데 외국 태생 비중은 각각 평균 11%, 18%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문인력 전체에 걸쳐 확인된 양상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국의 의료인력 특징과 역사적 이주주의 차이점을 일부 반영한다. 예를 들어 외국태생 의사 비중은 일본, 핀란드의 최저 5% 미만에서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최고 30% 이상 사이이다. 마찬가지로 외국태생 간호사 비중은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에서 20%를 상회한다. 절대수치로 보면 나머지 모든 국가에 맞서 미국만이 유일한 의사 및 간호사 순수입국이다. 많은 OECD국에서 이민자들은 그 수가 많으면서 또한 야간, 주말의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각지대의 치료 제공을 보장하기 때문에 OECD국의 보건의료제공에 중요한 역할로 기여한다.

## ... 인도, 중국, 필리핀 등의 큰 인력유출국 경우에 해외 근무하는 의료전문인 비중이 국내 공급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예로 필리핀, 인도는 각각 간호사, 의사인력 유출국으로 이들처럼 OECD국의 보건의료 인력 제공에 독특한 역할을 하는 인력 유출국이 몇몇 있다. 그렇지만 OECD역내 이동도 뚜렷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특히 영국과 독일로부터의 이동이 뚜렷하다. 의료전문인 이주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중동과 남아프리카로 남남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진다. 일부 남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는 의사 이주율이 특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뒤에 남는 의사 수가 비교적 적어 주민의 기초보건의료 제공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렇지만 인도, 중국 같은 큰 인력유출국은 해외근무 중인 의료전문인 수가 높긴 하지만 국내 공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의사 수에 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 저소득국의 의사와 간호사 유출을 막는다 해서 이들 국가의 의료전문인 부족난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기 장에서는 WHO추정에 근거, OECD국의 의료인력 이민자 수가 저소득국 의료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아프리카 경우 12% 정도). 요컨대 인력유출 저지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전체 하에 이 인력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써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 보건의료인력을 특정 대상으로 한 채용계획이 없음에도 이들의 이민은 증대하였다.

지금까지 OECD국이 의료전문인을 대상으로 특정 이민계획을 세운 경우는 거의 없고 양자협정의 역할은 그리 중요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의 이민 추이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고급인력 이민 추이도 일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인도, 중국, 필리핀 등 기존의 주요 인력유출국들의 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점 아프리카의 소국가, 중동유럽국가로부터의 인력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능력 동원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보건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OECD 국은 이들의 자격 인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OECD 국은 고급 수준과 고품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보장하는 가운데 새로 입국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능력을 동원하기 위해 힘쓰는 중이다. 여기서 핵심 사안은 외국인 의료전문인의 자격 인정 여부다. OECD 국은 이러한 직업능력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이론·실습시험, 어학시험, 그리고 더 흔하게는 실습 감독 기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절차가 더 엄격하다. 몇몇 국가는 외국의 의료전문인 가운데 국내에 이미 정착했으나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을 의료분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사업을 개발하기도 했다.

## 최근의 인력유출입 가속화와 함께 의료전문인의 국제이주에 따른 편익을 상호 공유토록 인력 송출·수입국 간의 협력 증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제이주가 현재 개도국의 의료인력 위기에서 제한적 영향만을 미쳤다고 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모든 이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약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은 국제공공재이고 건강관련 목표가 천년개발목표에서 국제연대의 핵심 요소를 이루며 무엇보다도 의료 접근은 개인의 기본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유출입국들은 서로 협력하여 의료전문인들이 개인의 이동 권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직업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이 던지는 도전요인에 맞서 제시할 유일한 대응책은 있지 않으나 가용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의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제이동으로 보는 편익의 상호 공유를 위해 확고한 정책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했다. 의료 관련 공적개발원조 증대, 의료인력 국제채용에 관한 세계관행규약 개발을 위한 WHO 노력 등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인력 유출입국 모두가 국내 훈련능력 증대, 인력유지 향상, 직업능력 혼합 및 통합치료 개발, 생산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안으로써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